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

- 세종시를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윤 선 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

- 세종시를 중심으로 -

주 영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윤 선 희

인 준 서

윤선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 개요

세종시는 신설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도시이다. 서울과 과천에서 이전한 중앙정부의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한 시민들이 세종시 신설 이전에 존재했던 연기군과 부용면, 장기면 주민들과 공존하는 도농복합의 이중구조를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은 서로에게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은 세종시정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최근 세종시 인구는 26만을 넘어섰고, 30년까지 80만을 목표로 도시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전국에서 인구 유입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이다. 하드웨어적 사업은 중앙정부가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와 시민의 정체성 정립 같은 소프트웨어적 분야는 예산이나 행정당국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 밖에 없다. 도시와 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는 지역축제를 꼽을 수 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축제는 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내세워 주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두 주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족함이 많으며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축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글과 세종대왕 등을 비롯한 세종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종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목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과 축제의 개념, 유형, 특징 등에 관해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3장에서는 세종지역 문화자원을 전통문화자원, 생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나누어서 현장조

사, 인터뷰, 문헌연구 등을 토대로 그 가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1~4회까지 진행된 세종축제 현황을 분석하여 홍보부족, 길러 콘텐츠의 부족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을 확인하였으며, 축제관련 전문가·담당자·참여자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분석된 가치를 토대로 전통문화자원, 생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통문화자원은 축제 개념으로 한글 캘리그래피와 과학콘텐츠개발을 제시하였다.

생태문화자원에서는 세종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고자 복숭아, 짜글이등을 홍보하였고, 자연환경활용은 금강의 나무를 세종축제로 연결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생활문화자원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주체의식의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홍보방식의 개선, 시민참여방법 개선, 세종축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의뢰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세종축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한글, 세종대왕,
세종 애민정신, 도시브랜드, 장육진, 세종 청사, 세종호수공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의의와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지역 문화자원과 축제	5
1. 지역 문화자원	5
1) 지역 문화자원의 개념	5
2) 지역 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징	6
2. 지역 축제	8
1) 지역 축제의 개념	9
2) 지역 축제의 기능 및 특성	10
III. 세종시의 지역 문화자원과 축제	13
1. 세종시의 지역특성	13
2. 세종시 지역 문화자원	14
1) 전통문화자원	14
2) 생태문화자원	24
3) 생활문화자원	30
3. 세종시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35
1) 현황	35
2) 문제점	36

IV. 세종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종축제 방안	44
1. 전통문화자원 활용	44
2. 생태문화자원 활용	50
3. 생활문화자원 활용	52
V.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연구자별 문화자원의 유형 구분	7
<표 III-1> 세종대왕 관련 주요 사건	15
<표 III-2> 연산군일기에 나타난 김처선 관련 내용	19
<표 III-3> 연기군 내 산성	20
<표 III-4> 제1회~4회 세종축제 비교	40
<표 IV-1> 세종금강유역나루터	51

그림 목 차

<그림 Ⅲ-1> 김종서 장군묘	17
<그림 Ⅲ-2> 김종서 장군묘 주변	17
<그림 Ⅲ-3> 전의박팽년선생 초혼제 초대장	18
<그림 Ⅲ-4> 운주산성	22
<그림 Ⅲ-5> 운주산성 성곽	22
<그림 Ⅲ-6> 비암사 전경	24
<그림 Ⅲ-7> 비암사 탑	24
<그림 Ⅲ-8> 세종 조치원복숭아 봄꽃 축제	25
<그림 Ⅲ-9> 세종 복숭아	25
<그림 Ⅲ-10> 도원문화제	26
<그림 Ⅲ-11> 세종대왕의 안질을 치료한 전의초수 제14회 왕의물축제 현장 ..	27
<그림 Ⅲ-12> 세종호수공원 야경	29
<그림 Ⅲ-13> 세종호수공원 내	29
<그림 Ⅲ-14> 장욱진 화백	32
<그림 Ⅲ-15> 장욱진 화백 그림	32
<그림 Ⅲ-16> 세종청사	34
<그림 Ⅲ-17>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34
<그림 Ⅲ-18> 세종국립도서관	35
<그림 Ⅲ-19> 세종국립도서관 내부	35
<그림 Ⅲ-20> 제4회 세종축제 재방문여부	38
<그림 Ⅳ-1> 김종서 장군제 리플렛	48

I. 서 론

1. 연구 의의와 목적

우리나라 17번째이자 가장 작은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잘 알려진 바대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공약을 시작으로 위헌판결로 인한 행정수도파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변경으로 우리나라 행정도시로서는 유일한 곳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파기 시도 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1일에 출범하여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신생도시이다. 이 신도시의 명칭에 연기, 금강, 가람, 한울 등 여러 후보가 올랐지만,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되었다. 외국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워싱턴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옹 파울로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인명을 도시의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례가 되었다. 사실 명칭 결정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대왕이 세종시 관내에 머문 적이 없기에 적정성에 대한 반론도 많았다. 하지만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김처선, 덕천군 등 세종시대의 인물들이 많은 흔적을 남긴 곳이고, 전의면에서 나오는 초수로 세종이 안질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어 세종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세종시는 원래 구 연기군 남면과 연동면,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현 장군면), 그리고 충북 청원군 부강면을 대상으로 했다. 구 연기군 쪽에서 세종시 예정지역이 떨어져 나가면 독자생존이 힘들다며 군 전체의 편입을 요청하였고, 결국 세종시 특별법에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크게 확장되었지만 신도심과 원도심, 원도심(조치원)과의 정서적 괴리감의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

았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직후 신생 도시의 정체성 확립,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신도심과 면단위 농촌지역, 조치원 주민과의 연대의식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 차원의 축제가 필요했다.

신생도시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콘텐츠로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세종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무대는 세종신도심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으로 결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과 더불어 신규 축제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시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근 축제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내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여 연기군 시절에 개최되었던 도원축제(도원문화제)를 폐지하고 그 축제의 일부 콘텐츠와 전의면의 ‘왕의 물 축제’를 세종축제에 흡수하였으며, ‘김종서 장군 문화제’는 신설되었다. 물론 인위적으로 창설한 축제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첫 회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 졌다.

2013년 1회 축제 주제는 ‘2013 세종의 꿈을 만나다!’였다.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스토리텔링 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국내에 세계 한글 작가대회나 한글 한마당 축제,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 여는 한글문화예술제 등이 있지만 세종시의 시도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 고장에 연고가 있는 인물을 내세운 이른바 휴먼 브랜드 축제는 전국에 70개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 등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그 중 국왕을 전면에 내세운 축제는 세종대왕을 제외하면 영월의 단종제가 유일하다. 세종대왕 관련 축제는 세종축제 외에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 약수터에 방문했던 사실을 내세운 청주시의 ‘세종대왕과 초

정약수축제'가 유일한데, 대왕의 능묘가 있는 여주의 '세종문화큰잔치'는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미비와 부조화로 실패하고, 2012년에 사실상 폐지되어 개별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현존하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역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두 주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의 충신이었던 절재 김종서의 무덤이 세종시 관내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김종서 장군 관련 프로그램, 관내에 많이 있는 군부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원도심과 면단위 농촌지역, 신도심 지역의 일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축제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였다.

2014년 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세종대왕, 지역의 관련 자원을 주제로 한 축제의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상당 부분 발전되었다. 하지만 신생도시의 축제라는 특성상 축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개입할 소지가 적고, 호수공원, 세종 컨벤션 센터, 세종국립도서관, 세종 정부 청사 등 다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발전여지가 많다.

본 논문은 세종시가 보유한 지역 문화자원을 전통문화자원, 생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세종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세종시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세종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축제 관련 문헌고찰과 세종시축제의 현황과 실적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지역 문화자원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축제 관련 문헌 고찰은 관련 학위 논문과 학술지논문 서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논문은 학술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Key word는 “축제”, “지역 문화자원” 등을 적용하여 검색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종시 축제의 현황과 실태조사는 세종시 축제 평가보고서(2013년 1회~2016년 4회) 4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세종시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 만족도, 문제성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세종시의 지역 문화자원의 조사는 세종대왕 관련자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세종시의 전통문화자원은 인물, 문화재 등으로 구분하였다. 생태문화자원은 특산물과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였고, 생활문화자원은 예술과 건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계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세종시의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와 신문·보고서,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문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일부 사진자료는 연구자가 2017년 5월~6월까지 촬영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본고에서는 총4회 개최된 세종축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축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과거 연기군의 군민들과 세종이 입주자들 간의 연대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주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앞으로 세종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지역 문화자원과 축제

1. 지역 문화자원

1) 지역 문화자원의 개념

지역 문화자원은 지역, 문화, 자원의 합성어인데 지역 문화자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단어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은 영어로는 ‘Region’ 으로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리적이고 행정적 경계선에 의한 구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Local’ 이 있다. 이렇게 지역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area)’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과는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개념과 달리 그 특정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물적·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행위를 하는 집단을 공동체(Community)라고 한다. 종합하면 Region과 Local 그리고 Community를 합친 입체적인 개념을 ‘지역’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Culture)는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그 의미가 아주 넓고 다양하여 정의하기는 아주 어렵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문화라는 단어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고 정의한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삶 자체와 삶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과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문화는 한 지역에서 독특하게 영유하고 있는 생활 그 자체이며, 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문화적 요소로서, 유·무형을 망라한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미래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국어사전, 국립국어원), 문화자원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오재환 등(2009)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전통 및 역사문화자원, 공연, 전시, 문학 등 미학적인 영역,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상영역의 세 가지로 보았으며, 김민경(2011)은 ‘보존·발굴·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여러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 문화자원의 의미는 일정한 생활공간과 그 공간 내에서 공유되는 생활양식, 그리고 그것을 유무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인적·물적 소재 및 가공물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의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은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지방은 중앙의 대비되는 관점으로 사용되어 지역보다는 다소 하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전통적인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세종시에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세종축제의 평가에 있어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세종축제를 단순한 지역축제로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지역 문화자원의 유형과 특징

지역 문화자원은 넓은 의미만큼 연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문화관광부(1990)는 전통문화자원, 종교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관광문화자원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오재환 외(2009)은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대중문화자원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치호(2007)는 일반적으로 지역 문화자원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유형문화자원과 하나의 현상으로 시각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무형문화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유형문화자원은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경관자원으로 세분되며, 무형문화자원은 인적문화자원, 비인적 문화자원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II-1> 연구자별 문화자원의 유형 구분

연구자	유형 구분		
문화 관광부 (1990)	전통문화자원	민속, 문화, 설화, 관혼상제	
	종교문화자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예술문화자원	문학, 음악, 미술, 공연, 기타	
	생활문화자원	행정, 교육, 산업, 의료, 교통, 통신, 체육, 레저, 편의시설	
	관광문화자원	유물, 유적, 명승지, 특산물	
남치호 (2007)	유형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유형문화재(세계문화유산, 국보, 보물 등) 유형민속자료(의식주, 신앙 등) 유형기념물(패총, 고분, 성지 등)
		문화시설자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 등
		인공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과 대비되는 개념
	무형문화자원	인적문화자원	특정인물 관련 자원, 풍속, 언어 등
		비인적문화자원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공예기술)
			지역문화축제
김향자 (2011)	자연적 자원	자연·경관 자원, 생태자원, 환경(기후)자원	
	문화적 자원 (유·무형 자원)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활동자원, 축제 및 행사, 지역인프라 자원, 이미지 자원	

연구자	유 형 구 분		
	(경제적 지원 포함)		
오재환 외 (2009)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비지정 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전통사찰	
		박물관	
		전통문화자원	전수시설, 민속예술보존회, 설화, 당산
	예술문화자원	공연예술자원	공연장, 공연기획사, 공연예술단체 등
		시각예술자원	미술관, 화랑, 경매소, 조각공원 등
		문화예술자원	문학관, 문예지, 출판사 등
	생활문화자원	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지역문화기반 시설	문화회관, 시민회관, 공원 등
	대중문화자원	문화지역	문화거리, 문화단지
		대중문화공간	대안문화공간, 대중예술공간 등
		문화축제	지역특성축제, 관광특산축제 등

자료: 황정주(2009), 마을만들기에서 지역 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옥(2013), 지역 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리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역 문화자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비롯하여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특성의 통제를 이루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역사성 등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옥수, 2014). 특히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산업과 발전의 기초가 되며, 소비대상으로서의 문화적 팽창을 가속화시킨다.

2. 지역 축제

1) 지역 축제의 개념

축제란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혹은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를 가지고 있으며 축제는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한다.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 현상이라고 정의된다.(류정아, 2003). 과거의 축제는 인류학적 전통에서 주로 광범위한 종교현상의 하나이거나 상징적 연행 행위의 하나로 연구되었다. 특히 축제를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축제의 근원은 종교의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

인류학적 측면에서 축제는 주로 광범위한 종교현상, 또는 상징적 연행 행위의 하나로 연구되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 축제현상을 단순한 놀이거리로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요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류정아, 2013).

어원상으로 축제는 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즐기고 떠든다는 놀이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축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기원의 의미가 줄어들고 놀이적 요소가 강화됨에 따라 이벤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손선미, 2008).

지역 축제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사나 제사(행위)를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나 놀이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일컬어 고유어로 큰 굿, 큰잔치, 대동(크게 하나가 되는)놀이 등으로 불리어 왔음을 지적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지역 축제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한 수단으로써 의도적,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김창수, 2005).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발전 성과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지자체들이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효과, 관광적 효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동수 외, 2007).

이렇게 볼 때 축제는 생활 공동체 혹은 일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생산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벌이는 제사이자 잔치이며 놀이라고 할 수 있다.

Festival이 축제에 가까운 개념으로 본다면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 또는 우주에 대한 경외감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 즉 유희본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축제를 통해서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축제 속에 민족의 신앙적 사상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축제는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비 일상성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상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여러 상징적인 절차로 가시화 시켜 주는 것이다. 과거의 축제가 그 시대의 사회적 의식, 습관, 사고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사회에 맞는 기호들을 가지고 축제의 세계를 이끌어 왔다면, 오늘날의 축제는 산업사회의 시대정신과 감각에 맞는 축제의 기호들로 발전하였으며, 사람들을 끌 만한 소재가 되면 지역 축제화하여 지역문화를 외부에 소개하고 외지인을 축제에 참석하게 하여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재정립하려는 것이 오늘날 지역 축제의 개념화가 되고 있다.

2) 지역축제의 기능 및 특성

축제의 기본원칙은 자발성, 자긍심, 연대감, 자기 삶의 존엄성에 대한 재

인식이다(류정아, 2008).

기본원칙이 지켜진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행사로 인식되어 자신의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게 한다. 이런 자긍심과 애착심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가지게 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시키거나 강화 시킨다.

오늘날의 축제는 공동체 의식 강화, 정체성 함양, 제례 의식 등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인 경제적 기능과 유희적 측면인 관광 및 문화 보존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인간의 본성인 유희성이 강조되고 있다.(차정현, 2014) 유희성이 강조되면서 놀이 형태를 띠는 축제로 변모되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화합 등의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 시킨 역동적인 발판으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관계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Getz, 1991). 축제는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축제에 참여하므로 지역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방문객 사이에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게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고(Bachleitne & Zins, 1999), 방문객들은 자신의 문화와는 상이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Saleh&Ryan, 1993).

축제는 억압된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몰랐던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시킨다(김정현, 2017).

오늘날의 축제는 공동체 의식 강화, 정체성 함양, 제례 의식 등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인 경제적 기능과 유희적 측면인 관광 및 문화 보존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인간의 본성인 유희성이 강조되고 있다(차정현, 2014). 유희성이 강조되면서 놀이 형태를 띠는 축제로 변모되어 사람들에게 즐거

움과 화합 등의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 시킨 역동적인 발판으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관계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Getz,1991). 축제는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축제에 참여하므로 지역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역 축제의 기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의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지역주민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주는지 등의 성과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축제 개최과정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장경진, 2016).

지역축제의 특성 중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도 많다. 국내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나 화천 산천어 축제, 해외에서는 삿포로 눈 축제, 하얼빈 빙 등제, 스페인 부놀 토마토 축제, 프랑스의 망통 레몬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지역성은 그 지역의 역사·지역인물·전통·예술·환경·특산물 등 공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라는 점에서 축제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역시 특산물인 복숭아를 주제로 한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전의초수를 주제로 한 왕의 물 축제를 2003년부터 열고 있으며, 왕의 물 축제는 세종축제의 일환으로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천한 역사와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 때문에 지역성이 강한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Ⅲ. 세종시의 지역 문화자원과 축제

1. 세종시의 지역특성

세종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전에는 행정구역상 연기군에 해당한다. 연기군의 위치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청주(淸州) 경계까지 15리, 문의현(文義縣) 경계까지 15리이고, 남쪽으로는 공주 경계까지 13리이고, 서쪽으로는 같은 주 경계까지 13리이고, 북쪽으로는 전의현(全義縣) 경계까지 26리이고, 한양과의 거리는 2백 87리다.

<東至淸州界十五里 至文義縣界十五里 南至公州界十三里 西之同州界十三里 北至全義縣界二十六里 距京都二百八十七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8권 연기현조)>

공주와 청주는 충청도의 치소(治所)로 중요한 행정구역이었다. 연기는 이 두 지역의 연결선상의 중심에 있었다. 또한 한양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있었던 곳이다.

연기군을 기반으로 탄생한 세종시는 신설된 지 이제 5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도시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계획은 이미 7·80년대부터 있었다. 처음의 예정지는 공주 장기면으로 계획되었으나 추진되기 이전에 무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연기 지역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과천에서 이전한 중앙정부의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한 시민들이 세종시 신설 이전에 존재했던 연기군(전체지역)과 부용면(충북 청원군), 장기면(공주시) 주민들과 공존하는 도농복합의 이중구조를 가진 도시가 되었다.

연기군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거 농업에 종사하던 연기 군민들의 정서와 새로 이주해온 주민들 간의 이질적인 정서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어 앞으로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세종시정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2006년 10월 10일, 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7~9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도시 명칭 공모 결과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여해 총 2160건이 접수됐었다고 밝혔다. 응모된 명칭으로는 새서울, 가온누리 등 순 우리말 이름은 물론, 뉴시너지(New Synergy), 블루 유토피아(Blue Utopia) 등 외국어로 된 이름, 한글과 외국어를 섞은 이름 등 다양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세종시의 동쪽에 자리한 원수산 밑의 평야의 이름을 딴 장남(長南)시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의 준말인 행복시 34명, 한울시 33명, 세종시 28명, 금강(錦江)시 27명 순이었다(세계일보, 2006).

장남시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세종대왕의 세종(世宗)은 한자의 의미로 보면 세상의 근본 또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종의 문화사랑과 애민정신을 살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세종’이 도시의 이름으로 선정되었다.

2. 세종시 지역 문화자원

1) 전통문화자원

(1) 인물

① 세종대왕

세종은 농사가 국가의 근간이 된다고 여겨 권농정책을 폈다. 먼저 농사짓는

기술을 과학적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세종시대의 과학 기술은 농업진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세종 14년 천문의상 제작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간의대, 혼천의 등은 천체 관측을 위해 제작된 기계들로서 천문시계로서의 역할을 하였다(이용승, 2015).

<표 III-1> 세종대왕 관련 주요사건

시대	사건
세종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종 즉위, 집현전 확대 ● 강원도 굽주린 백성 729명의 조세 감면
세종2년~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실이 바른 사람을 뽑아 표창 ● 명나라에 금과 은을 조세항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 ● 정밀한 저울을 만들어 유표
세종6년~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종파를 선, 교, 약종 36계 사찰로 통합 ● 박연 편경 제작, 물시계 제작을 명령 ● 문과 시험을 경전 외우기에서 글짓기 중심으로 변경 ● 효행록의 간행을 지시
세종11년~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농사직설을 편찬 ● 박연의 건의에 따라 음악을 정비 ● 노비종부업 문제점을 개선, 「향약집성방」을 완성
세종16년~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레를 널리 보급, 일성정시의를 완성 ● 의정부조직을 확대, 훈경각이 완공 ● 일본지도 완성
세종21년~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역원 내에서 외국어 사용 의무화 ● 훈민정음 창제
세종26년~3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고치기 위해 초리수의 약수방문 ● 「동국정운」을 간행하여 배포

세종실록은 총 163권, 15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명은 세종장헌대왕실록이다. 1418년 8월부터 1450년 2월까지 세종 재위 31년 6개월 동안 각 방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에 따라 기술하였다.

세종실록의 기록에서 애민정신, 통섭의 리더십, 생태주의적 관점 등 세종의 사상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및 과학기술 발달에 힘쓴 세종의 역사적 업적을 기술한 실록은 인간 세종의 애민을 감지할 수 있는 기록이다.

② 김종서

김종서 장군의 탄생지는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 의당면이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의 서막이었던 계유정난은 세종과 성종으로부터 어린 단종을 보살피라는 명을 받은 대신 중 좌의정 김종서의 암살로 시작되었다. 영의정 황보인이 있었지만 5척 단구임에도 ‘대호(大虎)’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무를 겸비한 김종서가 가장 큰 장애였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중요했기에 수양이 직접 나서서 그를 죽였다.

세종시 장군면(옛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에 있는 김종서 장군의 묘소와 관련하여 이곳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장군에게는 아끼는 애마가 있었는데, 주인이 피살되어 능지처참 되자, 말이 뛰어들어 장군의 다리 한쪽을 물고 고향 공주까지 달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린 말은 결국 그 곳에서 죽었고, 마을사람들은 장군과 말을 불쌍히 여겨 말과 한쪽 다리만이라도 물고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다(함께 그리고 공동체, 2016).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곳을 ‘한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지명이 한자화하면서 “한”이 ‘클 대’, “다리”는 ‘다리 교’로 바뀌어 본뜻과는 다르게 대교리(大校里)가 된 것이다. 여기서 장군의 부인이 전의 이씨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의 이씨는 공주와 전의면 일대에 자리 잡았던 토착 성씨로 당시 지역기반이 튼튼했다고 한다. 장군의 아들 김승벽이 전의사람 이로의 집에 피신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참고로 전의 이씨는 세종시에 본관을 둔 유일한 성씨이기도 하다.

김종서 장군은 계유정난 이후 293년 만인 1765년에 완전히 복권되었고, 559년 후에는 그의 묘역이 기이하게도 충성을 다했던 임금의 이름이 붙은 세종시에 편입되었고, 세종시 지정기념물3호로 지정되었으며, 세종시의 출범과 함께 면의 이름도 장기에서 장군으로 바뀌었다. 묘역은 660 여㎡ 규

모로 둥근 담장과 세 개의 문으로 꾸며졌으며,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다. 오래된 묘비와 ‘충신정려(忠臣旌閭)’란 현판은 영조 시대에 세워졌다.



<그림 III-1> 김종서 장군묘



<그림 III-2> 김종서 장군묘 주변

③ 박팽년

전의(全義)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박팽년 선생의 고향으로 전의면 관정리 박동(박골) 마을에서 박팽년 선생의 조부모, 부모 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박동에는 집터 등 유적이 남아있지 않으나 조부인 박안생의 묘가 전의면 박동에서 가까운 전동면 송정리에 있으며 세종시 지정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팽년은 이조판서를 지낸 박중림의 장남으로 자는 인수, 호는 취금헌이며 1417년(태종17년)생이다. 1434년(세종16년),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집현전 학사가 되어 성삼문 등과 훈민정음 창제와 편찬사업에 참가하였다. 대표적인 절의파인 성삼문, 이개, 하위지, 류성원, 유응부와 함께 사육신의 일원으로서 조선시대 충절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다.

전의박팽년연구소(회장 이경순)는 2015년 초부터 전의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박팽년 선생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답사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다. 전의를 비롯한 세종시 및 관련 장소를 답사하고 세종향토사와 연계하여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6월 7일에는 전의면 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제2회

‘전의현 박팽년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그림 III-3> 전의박팽년선생 초혼제 초대장

출처 : 전의박팽년연구소(2016)

④ 김처선

조선시대 충절을 보인 대표적인 환관 김처선의 본관(本官)은 전의(全義)이다. 세종조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무려 7명의 임금을 모셨다. 문종 때 유배된 적이 있었지만 단종 때 귀양이 풀리고 직첩이 되돌려졌다. 1455년(단종 3년) 정변에 관련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유배되어 고향의 관노가 되었다.

복직되어 1460년(세조 6년)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올랐으나, 다시 시종이 근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짧은 예종조를 거쳐 성종조에 이르러 통역에 공이 있고, 의술을 발휘하여 대비의 신병 치료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품계가 정이품인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연산군 12년인 1505년, 군주의 타락이 극심해지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노년의 김처선은 주군에게 직간을 하였다. 여러 임금을 모셨지만 금상(지금의 왕)처럼 타락한 왕은 없었다는 내용이였다. 격노한 연산군은 직접 활을 쏘아 옆구리에 맞추었지만 끝까지 할 말을 다했다고 한다.

연산군은 다시 화살을 쏘아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다리를 자르고 혀를 자르고 창자까지 헤쳐 죽인 다음 시체를 호랑이에게 먹였다고 한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양자인 이공신(李公信)은 물론 7촌까지도 연좌시켜 죽이고 본관인 전의 김씨도 없애 버렸다. 그리고 조야(朝野)에 명하여 ‘處(처)’ 자(字)와 ‘善(선)’ 자(字)를 이름에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증오하였다.

<표 III-2> 연산군일기에 나타난 김처선 관련 내용

실록	월일	제목
54권	연산 10년 7월 16일	내관 김처선을 가두다
	연산 10년 7월 16일	내관 김영진과 김처선을 처벌하다
57권	연산 11년 4월 1일	환관 김처선과 양자 이공신을 금중에서 죽이다
	연산 11년 4월 1일	내관 김처선의 가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못으로 만들고 본관을 혁파하게 하다
	연산 11년 4월 1일	김처선의 친족을 칠촌까지 김계경의 예에 따라 정죄하게 하다
	연산 11년 4월 2일	김처선 부모의 무덤을 뚫고 석물을 치우게 하다
	연산 11년 4월 3일	김처선의 계후자를 연좌시키게 하다
	연산 11년 4월 3일	김처선에 관한 일로 어제시를 내리고 승지로 하여금 화답해 바치게 하다
	연산 11년 4월 4일	임금을 섬김에 간사한 죄는 연좌하여 중죄에 처하도록 의정부에 전교하다
	연산 11년 4월 23일	김처선 등의 처를 김계경의 처 원빈의 예에 따라 내사복시에 정역시키게 하다
	연산 11년 6월 2일	김처선 등의 족친을 다른 죄인의 족친의 예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다
	58권	연산 11년 6월 16일
연산 11년 7월 14일		일력의 처서의 ‘처’ 자가 김처선의 ‘처’ 자와 같다 하여 조서로 고치도록 명하다
연산 11년 7월 19일		모든 문서에 김처선의 ‘처’ 자를 쓰지 말게 하다
61권	연산 12년 3월 12일	죄인 김처선의 집을 철거하여 못을 파고 죄명을 새기게 하다
	연산 12년 3월 13일	김처선의 죄명을 돌에 새겨 그 집 길가에 묻고 담을 쌓게 하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은 실각하고 김치선은 복권되었다(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4일). 1751년(영조 27), 전의에 정문이 세워졌다(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3일).

(2) 문화재

① 운주산성

연기군 내의 산성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기군지, 1988. 금남면향토지, 1995). 일부 성은 위치만 확인이 될 뿐 원형을 잃은 지 오래이다. 지역 기념물로 지정된 산성은 운주산성, 이성산성, 금성산성으로 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그나마 원형이 남아 있는 산성은 운주산성이다.

<표 III-3> 연기군 내 산성

성의 명칭	위치	비고
燕岐 唐山城	남면 보통리	
全義 邑內里 山城	전의면 읍내리	
元帥山城	남면 진의리	
羅城里山城	남면 라성리	
黃牛山城	동면 합강리·명탄리	
雲住山城	전동면 청송리 67번지	기념물 제79호
李城山城	전의면 신방리	기념물 제77호
金城山城(金伊城)	전의면 달전리	기념물 제78호
全義 高麗山城	전의면 고등리	
甌山城	전의면 서정리	
瓦村里 山城	서면 와촌리 기와말	
鵲頭山 南堡	동면 품곡리	
鵲頭山 北堡	동면 도원리	
養性山城	동면 문산리	
昧谷山城	회북면 부수리	
蘇文山城	금남면 박산리	
龍潭里山城	금남면 용담리	

운주산성(雲住山城)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90 일대에 있는 산성이다. 전동면 청송리, 미곡리와 전의면 동교리, 신정리 경계 지점에 운주산(459.7m)이 솟아있다. 운주산성은 바로 이 운주산을 이용한 산성이다. 현재는 산성 서쪽 아래편으로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간다.

운주산성은 둘레 3,210m, 폭 2m, 높이 2~8m의 산성으로 백제시대 산성이다. 분지형의 능선이 외성 구실을 하고, 안에는 1,230m의 토축으로 쌓은 내성이 있는 이중(二重)구조다. 석성과 토성이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고, 성의 축조방식은 석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산성은 주봉을 포함한 3개의 작은 산봉우리를 감싸면서 마름모꼴을 형성하고 있다. 남북보다 동서의 축이 조금 더 길며, 성 안의 면적은 약 30만㎡이다.

토축성벽은 산 경사면에 협축(夾築: 중간에 흙이나 돌을 넣고, 안팎에서 돌등을 쌓는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저변의 지름은 3~3.5m이고, 높이는 가장 양호한 곳이 1.7m이다. 무너진 성벽에서 3곳의 문터가 확인되는데, 서·남·북쪽의 성벽 중간지점에 개설되어 있다. 서쪽의 문터가 가장 잘 남아있는데 이 곳이 성안에서 전의 쪽으로 통하는 성문 구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성안의 평지는 건물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 동쪽에는 후대에 지은 불사(佛舍)가 있었다. 정상부에는 30여 미터의 둥근 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층계를 이루면서 건물지 형태의 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기우제단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안에는 3곳의 우물터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는 2곳만 남아 있다(함께 그리고 공동체, 2016).

성안에서는 백제시대의 적갈색·회갈색·흑갈색의 기와조각과 토기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 어골문(魚骨文)과 격자문(格子文)이 장식된 기와 조각을 비롯하여 토기조각이 발견되고 조선시대 백자조각도 수습되고 있어,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어 온 산성임

을 추정할 수 있다. 운주산성은 서기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풍왕과 복신, 도침 장군이 앞장섰던 백제부흥 운동군 최후의 구국항쟁지로 알려져 있다.

운주산 등산로 입구에 사찰이 있으며 백제가 멸망한 매년 음력 9월 8일을 기해 백제 멸망기의 의자왕과 부흥기의 풍왕 그리고 백제부흥운동과정에서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고산제를 지내고 있다.

1989년 상징탑을 건립하여 백제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기존에 운주성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지정이 해지되고, 2012년 12월 31일 세종시 지정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도침 장군이 앞장섰던 백제부흥 운동군 최후의 구국항쟁지로 알려져 있다.



<그림 III-4> 운주산성



<그림 III-5> 운주산성 성곽

출처 : 정원구(2016), 세종특별자치시 제4기 블로그기자단

② 비암사(碑巖寺)

비암사는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기군에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사찰이 있으며 역사도 짧은 경우이나 비암사는 연기 지역 여러 사찰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경우이다.

비암사는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일명 ‘뱀절’ 이라 불렸다. 옛날 깊은 산속에 있는 이 절을 찾아 가려면 아침 일찍 나서서 점심 때 들려 열

른 내려와야 어둡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절에는 비구니 혼자 기거하였다. 어느 날 저녁공양을 올리기 위해 법당에 들어가려는 데 낯선 남자가 법당 앞에 있었다. 스님은 얼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나오지 못하였는데, 남자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일 저녁 나타났고 스님은 그 남자가 사라질 때까지 법당 안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궁금하였다. 스님은 새벽에 사라지는 남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산 너머 큰 바위 아래 굴로 들어갔다. 굴 안에서는 커다란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구렁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늘에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절의 삼층석탑을 100일 동안 돌며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아무에게도 너의 정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여 99일을 돌았는데 하루 남겨 놓고 스님께 정체를 들켰으니 사람이 되지 못한 슬픔에 운다고 하였다.

스님은 자신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구렁이에게 속죄 하는 마음으로 그 굴에서 같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절을 뱀절이라 부르게 되었고, 비암은 충청도 사투리로 뱀을 지칭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비암사는 뱀절을 한자화 한 것으로 ‘碑岩寺’ 라고 쓴다(임영수, 2017).

1959년 산 넘어 쌍류리에 사는 이재욱이란 대학생이(동국대 불교학과) 과제물로 비암사 삼층석탑 위에 놓여진 불상을 탁본을 떠 제출하니 이것을 본 동국대 황수영 교수가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암사는 비석처럼 생긴 불상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불상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 이곳에 살던 전씨(全氏)가 주도하여 백제의 역대 왕과 대신, 부흥운동을 하다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673년 석불비상을 조성하고 제를 올렸다는 내용이다. 현재도 매년 4월 15일에 백제 대제를 지내고 있다.



<그림 III-6> 비암사 전경



<그림 III-7> 비암사 탑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길을 따라서 <http://wwjhlav.blog.me/220963329634>

2) 생태문화자원

(1) 특산물

조치원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에 국영 숙박시설인 원(院)이 있어 유래하였다. 원의 위치는 현재의 신흥리와 서면 경계 지역으로 지금의 실내 체육관 주변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좌우측으로 아홉 갈래로 길이 갈라져서 구거리라고 불렀다. 지금은 과거의 흔적이 없지만 1918년 지도에는 당시의 모습이 보인다. 신흥리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더욱 교통의 요지로 부상했다. 1908년에 발표한 육당 최남선의 장편 기행시 <경부철도가>에 조치원이 등장한다(www.sj-urc.or.kr, 2016).

조치원의 최고 특산물은 복숭아로 1908년 농업진흥청의 전신인 권업모범장의 과수시범포가 연기 지역에 설치되었고, 조치원 일대의 토양과 기후가 복숭아 재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서 봉산리에서 첫 시험재배가 시작되었다. 이후 역 동쪽에 위치한 신흥리가 다른 지역보다 5m 이상 지대가 높아 복숭아 재배에 이상적인 곳으로 지목되어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http://www.sj-urc.or.kr/,2016). 복숭아 재배지로서의 조치원의 입지는 단순히 이러한 자연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복숭아는 다른 과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육질이 연하여 수확 후에 장기 보관이 어렵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얼마나 빠르게 유통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 점에 있어 조치원은 유리한 곳이었다. 조치원역을 통해 신속하게 서울로 운송할 수 있는 교통 여건 또한 복숭아 재배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현재 복사골로 유명해진 부천의 소사나 충주 등 유명한 복숭아 산지도 모두 조치원에서 기술을 이전했다. 조치원에는 1970·80년대만 해도 복숭아밭이 많았다. 현재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복숭아 과수원 대부분이 택지로 바뀌었다. 현재는 연서면의 국촌리 등 읍의 외곽으로 재배단지가 확산되어 복숭아의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열린 “제10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우천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프로그램·축제상품·음식 다양성 부분 만족도는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휴게시설·축제 상품 가격만족도는 낙제 평가되었다. 특히 방문객들은 우수한 품질은 인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황에 따른 가격 영향이 불가피 하긴 하지만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역특산물을 내세운 세종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다(남난우, 2017).



<그림 III-8> 세종 조치원복숭아 봄꽃 축제

<그림 III-9> 세종 복숭아

출처 : 마토 블로그(<http://foemum.blog.me/220992099328>)
 남난우(2017), “제13회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성황”, IPN뉴스
 김기섭 <http://sejongstory.kr/220989093237>

도원문화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가 선을 보였던 시기인 1993년에 연기군 공식 축제로 시작되었다. 원래는 1953년에 창간된 문학잡지 <백수문학>의 동인들이 복숭아꽃이 피는 계절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행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체육대회, 우량아 선발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도원문화제의 절정은 복숭아 아가씨 선발대회와 카퍼레이드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미모를 갖춘 여성들의 경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복숭아 아가씨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적지 않은 시상금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도원문화제는 제 1회 세종축제가 개최되면서 통합되었다.



<그림 III-10> 도원문화제

출처 : 충남도청소식지 시군소식(32277)
<http://blog.naver.com/sinmunman/70105572968>

(2) 자연환경

① 전의 초수

전의초수(全義椒水)(세종특별자치시, 2014)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약수터이다. 2004년 3월 3일 연기군의 향토유적 제46호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유적 제46호로 재지정 되었다.

전의초수는 조선의 성군인 세종대왕의 눈병을 고친 약수로(조선왕족실록, 1603) 朝鮮王朝實錄 제106권에(선조 106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11월 16일(정유)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위하여 지나칠 정도로 책을 많이 보다가 눈병을 앓게 되었고 실명 위기에 몰릴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때 어떤 이가 와서 복천, 전의, 청주에 초수가 있는데 물맛이 차고 후추처럼 쓴맛을 내어 눈병치료에 좋다고 아뢰었다. 우선 사람을 보내어 치료케 하니 효험이 있어 처음에는 청주 초정에 행궁을 짓고 치료 했으나 완쾌하지는 못하고 환궁하였다. 그 후 약효가 강한 전의 일대에 행궁을 짓고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그해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의 고초가 심하자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염려하여 행궁 건설을 포기하고 1년여 동안 전의 초수를 매일 해질녘에 떠서 사기그릇에 담아 빠른 과발을 통해 신속히 운반하여 치료를 하니 눈병이 다 나았다고 한다. 지금도 전의 초수는 나오고 있는데, 위장병, 피부병,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고질병에 효과를 보고 있다.

(<http://www.sejong.go.kr>,2017)



<그림 III-11> 세종대왕의 안질을 치료한 전의초수, 제14회 왕의 물축제 현장
출처 : 강정임 <http://sejongstory.kr/220832607490>

② 세종호수공원

세종호수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16(어진동)에 위치하며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 공원이다. 금강의 물길을 끌어들이어 조성한 공원으로 총면적은 70만 5,768㎡이고, 호수면적은 32만 2,800㎡이다. 담수량은 50만 8천톤에 달하며, 평균수심은 3m이다. 대략 축구장 62개를 붙여놓은 크기다.

호수는 5개의 테마섬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먼저 호수를 가로지르는 세호교 위에 670석의 무대섬이 있다. 또 축제를 위한 축제섬과 모래해변이 있는 물놀이섬, 수생식물이 자라는 물꽃섬, 수질정화를 위한 식물들이 자라고 습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습지섬 등이 호수 곳곳에 터를 잡았다. 가장자리에는 8.8km의 산책로와 4.7km의 자전거도로가 지나간다(함께 그리고 공동체, 2017).

도심 한 가운데 조성되어 세종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여행자의 쉼터인 세종호수공원은 2013년 3월에 완공되었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광장분수대가 있고 가족단위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호수 소풍 숲이 있다. 이곳에는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다. 잔디로 덮인 바람의 언덕은 전망이 좋다. 호수전망대는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주변을 관찰하기에 좋은 곳이다. 수상 무대섬에는 다양한 축제행사와 야외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한다. 호수 곳곳에 수경시설도 마련되어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호수공원의 명소는 중앙 입구 옆 고가 아래의 광장분수이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솟구치는 분수 속으로 뛰어들고, 어른들은 고가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한다.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한 시설인 세종호수공원 수질정화사업소가 있어 금강물을 유입하여 매일 5,000톤의 물을 펌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세종호수공원수질정화시설사업소, 2016).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식물을 심은 청음지도 있다. 이곳에서는 금강의

물을 더욱 맑게 만들어 호수로 공급한다.

호수 가장자리에 모래톱을 만들어 바닷가에서처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은빛해변과 작은 요트인 덩기나 수상스키, 서핑 등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섬도 있다.

그밖에도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는 연꽃테크, 야생화가 자라는 야생초화원, 휴식공간인 감각정원, 팔각정 정자가 있는 수변전통정원이 있다. 테마산책로는 소나무길, 벚나무길, 은행나무길, 이팝나무길, 들풀길, 나들숲, 가을단풍숲, 살구나무길 등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주제별 산책길을 제공한다. 그리고 공원탐방을 위한 4가지의 추천코스가 있는데 커플코스, 가족코스, 그린코스, 운동코스가 있다. 세종호수 공원은 세종축제의 주 무대이기도 하며 2016년 마을기업 박람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지방자치박람회 등 전국 단위의 행사가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다.

세종시 당국에 의하면 기존 화원을 양질의 토양으로 개량하고 계절에 맞는 식재를 함으로써 1년 내내 아름다운 이색적인 호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다양한 이색자전거 대여시설이 만들어 질 것이며, (LH 세종특별본부, 2017) 조명시설을 보강한 “일몰명소”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호수공원의 야경도 세종시의 자원으로 자리 하리라 본다.



<그림 III-12> 세종호수공원 야경



<그림 III-13> 세종호수공원 내

출처 : 안명희(2016), 세종특별자치시 제5기 블로거기자단
http://www.sejong.go.kr/prog/blog/citizen/sub04_02_01

우리나라 축제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축제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축제는 주차나 축제장 관리, 공간이용 등 운영상의 장점 때문에 강변둔치, 야외공연장, 운동장들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 같은 주민생활공간이 아닌 큰 공간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축제에 관심이 없거나 적은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는 데에는 제약이 많은 장소일 수밖에 없다.

서울 응봉동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소 자체가 축제의 주제와 적합하여 축제의 성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종 축제의 주무대인 호수 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서 시민들이 평소에도 즐겨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축제 참여도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더구나 대형 행사 개최에 적합한 컨벤션 센터가 인접해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세종 축제 노을 음악회의 무대이자 배경이 되어 세종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데 일조를 하였다.

고양 꽃박람회가 국제 박람회까지 성장한 이유도 세종호수공원이 등장하기 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일산호수공원이라는 거대하고 개방된 공간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라는 공간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호수공원은 세종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세종시의 자산이다.

3) 생활문화자원

(1) 예술

① 장육진 화백

세종시의 모체 연기군은 현대무용의 대가 홍신자,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등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했지만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장육진 화

백은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존재라 할 것이다. 장욱진 화백은 1917년 음력 11월 연기군 동면(현 연동면) 송용리에서 4형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일가가 서울로 이사했고, 8세 무렵에 이미 미술에 대한 소질을 보여 1937년에는 전 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고 1939년에 도쿄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 미술학교)에 진학하기에 이른다.(함께 그리고 공동체(2017). 이종섭, 이쾌대, 남관 등도 유학했던 이 미술대학은 도쿄 교외에 있는데, 미술학교다운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 폭격으로 옛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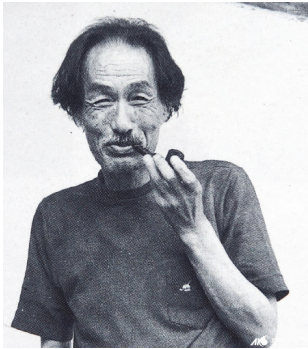
경성 제2고보(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일본인 교사에게 항의하다 퇴학 당한데다가 성홍열을 앓고 몇 년 씩 탓에 대학 진학이 만 22세로 다소 늦었던 것이다. 1944년부터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을 당해 일하던 중 해방을 맞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과 미술교사로 일하며 창작 활동을 재개한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군화가로 활동하다가, 1958년에는 미국 뉴욕 월드 하우스 화랑 주최 한국현대작가전, 동남아시아 문화교류전, 미네소타대학 미술학부 교환전에도 출품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에 임명되었지만 6년 만에 그만두고 오로지 창작에만 전념하였다.

비공(非空)이라는 법명을 받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하고 술을 즐겼으며 새를 즐겨 그렸던 그는 서울 혜화동과 덕소, 수안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에 몰두했다. 198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살았던 마북동 가옥은 등록문화재 제404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하게도 작고한 해인 1990년 가을, 아주 오랜 만에 고향의 생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12월 27일 갑자기 발병하여 세상을 떠났다.

화장한 유골은 고향 세종시 연동면에 탐비 세워진 안에 모셔졌고, 탐비에는 그가 즐겨 그렸던 새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양주시는 장 화백의 자택을 보전하고, 양주시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동안 고향인 세종시는 탐

비 설립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림 III-14> 장옥진 화백 <그림 III-15> 장옥진 화백 그림

출처 : 네이버블로그 해피바이러스,
<http://blog.naver.com/4artmagazine/110103184353>

(2) 건축

①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政府世宗廳舍, Government Complex Sejong)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정부 청사이다. 세종청사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공공시설물로 미국의 조형전문가 다이애나 발모리가 조경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건물의 높낮이와 옥상정원을 통해 자연미를 구현하여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의미하는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2005년 3월 18일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 10월 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이 고시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벽지화 추진으로 인하여 이전은 지연되었다. 49개 기관 2010년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 36개 기관(10,452명) 계획 외 수용을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이 좌절된 이후 진행된 사항이다.

2012.9.14.~12.20일 1단계 사업으로 13개 기관(중앙 7, 소속 6) 총 5,046명 이전, 2단계는 2013.12.13.~12.29 16개 기관(중앙 6, 소속10) 총 4,888명이 이전하였다. 3단계는 2014.12.12.~12.26 5개 기관(중앙 3, 소속 2) 총 2,292명 이전, 4단계는 2015.11.1.~2016.9.3. 4개 기관, 1,585명이 이전하였다(세종청사홈페이지, 2017).

현재 19개 중앙부처와 18개 소속기관 공무원 1만 5,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의 관리는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어진동 일대의 옛 이름은 서민의 마을이라는 뜻의 민마루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7월 1일, 세종 출범 당시에는 수도권 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청사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형 관광버스가 줄줄이 대기해 있는 진풍경도 보였다. 지금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이주하여 서울과 세종을 잇는 출·퇴근 버스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종 청사는 구름다리를 통해 3.6km의 옥상정원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꿈틀 거리는 용을 연상시킨다. 이 옥상정원의 길이는 세계 최장으로 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2016.05.25.). 옥상정원에는 유실수, 약용식물, 허브류 등 218종 117만 여 본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역새길, 들풀길, 너른길 등 3개의 테마길이 조성되어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속의 녹색청사로 자리 잡고 있다.

청사의 머리 부분은 국무총리실, 꼬리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중앙대로와 위압적인 청사로 구성된 과거의 관청가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그림 III-16> 세종청사

출처: 신바람여사

<http://blog.naver.com/lucia729km/220994112923>



<그림 III-17> 세종청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② 국립세종도서관

양옆을 살짝 들어 올린 지붕을 가져 한국적 조형미를 자랑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의 엠블럼하고도 잘 어울리고, 실제적으로 정부청사를 능가할 정도로 세종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문을 즐겼고 독서광이었던 대왕과 잘 어울리는 건물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정보 웹진인 디자인 북은 국립세종도서관을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독일 레드

닷 디자인상 본상)으로 선정했다. 도서관 건물 자체가 책을 펼쳐놓은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이 된다. 또한 세종시대의 왕립 도서관이었던 집현전의 이미지와도 잘 연결되는 건물이기도 하다.



<그림 III-18> 세종국립도서관



<그림 III-19> 세종국립도서관

3. 세종시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세종축제는 지역주민 자긍심 향상, 외부 방문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세종시 이미지 향상의 목적을 두고 기획하여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도원 문화제, 왕의 물 축제, 김종서 장군축제 등 기존 지역 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축제 등 최근 축제 운영방식 등을 도입하여 매년 10월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4회(2016년)까지 진행되었다.

1) 현황

제1회 세종축제는 ‘2013, 세종의 꿈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간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는 공식행사, 행복나눔 걷기대회, 세종 건강문화축제, 체험행사, 연계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4, 세종의 꿈을 즐기다’란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세종축제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세종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공연행사, 문화행사, 전시·체험 프로그램, 연계행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축제 공간을 5개의 존(Zone)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제3회 세종축제는 ‘세종대왕 납시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5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공식행사(개회식·폐회식), 공연, 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 3회 세종축제는 축제날짜에 따라 10월 9일 세종, 한글과 만나다, 10월 10일 세종, 음악과 만나다, 10월 11일 세종, 과학과 만나다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세종의 꿈, 세종에서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4회 세종축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개회식, 폐회식의 공식행사와 공연행사, 문화행사, 한글산업전, 체험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2016년 10월 세종 방문의 달에 열린 제4회 세종축제는 지난 3회와 마찬가지로 날짜별(과학, 음악, 한글) 주제를 달리하여 진행하여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푸드 트럭, 수상레저체험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 문제점

제1회 세종축제는 세종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주차시설의 부족, 교통혼잡, 화장실 부족 등 운영과 관련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관광경영학회, 2013). 특

히, 세종과 한글을 메인테마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세종축제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용승, 2015).

제2회 세종축제는 제1회 세종축제에 비해 수준 높은 공연, 세대를 달리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구분한 주제 전시 등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대표 콘텐츠의 부족, 미흡한 홍보, 미숙한 진행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1회 축제와 비교했을 때 한글을 소재로 한 많은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나, 한글이라는 명칭만 가져다 붙였을 뿐 참신하지 못한 체험으로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이용승,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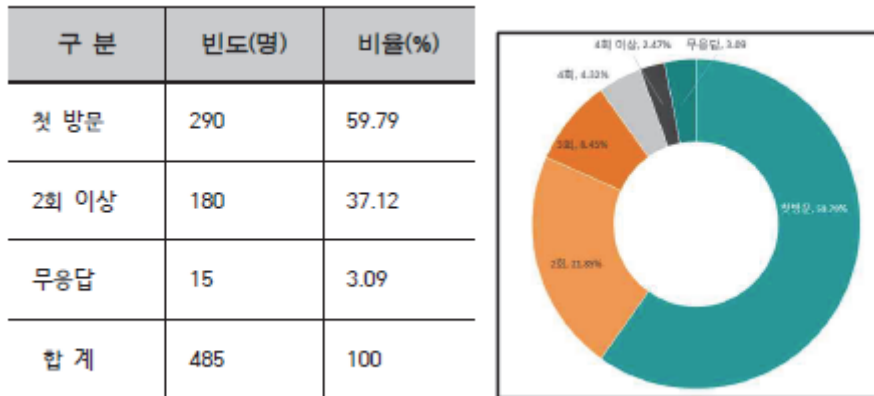
제3회 세종축제는 날짜에 따라 세종축제의 주제를 설정하였으나, 해당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부족해 보이며, 전체 슬로건인 ‘세종대왕 납시오’와 날짜별 주제와의 흐름이 맞지 않아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청운대학교, 2015). 2회 축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 수를 증가시켜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세종의 애민사상 등을 담고 있는 ‘한글 꽃 내리고’의 메인 공연은 세종축제의 개최목적에 부합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세종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활용 등이 미흡하다는 점은 개선해야한다.

제4회 세종축제는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메인 콘셉트에 비해 세종시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주제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하였으며, 방문객 유인 콘텐츠(푸드트럭 등 연계 프로그램)와 주제 콘텐츠(한글관련 프로그램)의 주객이 전도되어 참신한 주제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총4회 진행된 세종축제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세종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세종대왕과 한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5주년과 더

불어 5회를 맞이하는 2017년 세종축제는 ‘세종시민이 만드는 세종축제’를 콘셉트로 일반시민이 축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세종시가 조사한 제4회 세종축제평가보고서에는 세종축제 재방문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제4회 세종축제를 처음 방문한 응답자가 59.79%로 나타났다으며, 2회 이상 세종축제에 방문한 응답자는 37.11%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20> 제4회 세종축제 재방문여부

4회까지 진행된 세종축제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세종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세종대왕과 한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5주년과 더불어 5회를 맞이하는 2017년 세종축제는 ‘세종시민이 만드는 세종축제’를 콘셉트로 일반시민이 축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추진위원단의 세종축제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가 운영주체로서 주민주도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하는 바람이 있다. 주민참여 극대화를 지향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원활동형 주민참여, 또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연결이다. 이 두가지 사항은 주민자치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 하여야 한다. 기존하고 다른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응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경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모두 다 호응을 얻어 이것을 정례화 시키는 방법을 논의 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발품을 팔아 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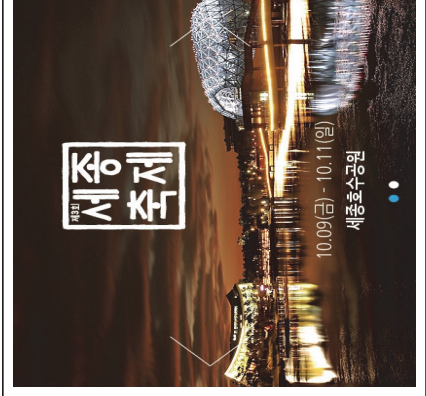
<제5회 세종축제 시민추진위원단 A의 인터뷰 내용 >

<표 III -4> 제1회~4회 세종축제 비교

구분	제1회 축제	제2회 축제	제3회 축제	제4회 축제
현황	<p>· 주제 : '2013, 세종의 꿈을 만나다' · 기간 : 2013년 10월 11일 ~13일 · 장소 : 세종호수공원 일원 · 주요행사 : 공식행사, 행복 나눔 걷기대회, 세종 건강문화축제, 체험행사, 연계행사</p>	<p>· 주제 : '2014, 세종의 꿈을 즐기다' · 기간 : 2014년 10월 10일~12일까지(3일간) · 목적 :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세종시의 브랜드를 강화 · 주요행사 : 식행사, 공연행사, 문화행사, 전시·체험 프로그램, 연계행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축제 공간을 5개의 존(Zone) 구성</p>	<p>· 주제 : '세종대왕 남시오' · 기간 : 2015년 10월 9일~11일 · 장소 :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 주요행사 : 공식행사, 행복 나눔 걷기대회, 세종 건강문화축제, 체험행사, 연계행사</p>	<p>· 주제 : 세종의 꿈, 세종에서 만나다 · 기간 : 2016. 10. 7 ~ 10. 9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 일원 · 주요행사 : 공식행사, 관광지 및 청사 육상정원 투어, 한글산업전</p>
공식 행사	<p>개막식 (인트로영상) 개막공식 행사 : (개막 선언, 축하 외) 주제공연 개막 축하공연 왕의 물 행사 (선상제행) 개·폐막 두 빛의 향연</p>	<p>개막식 행사 개·폐막 두드림 빛의 향연 왕의 물 행사(선상제행) 폐막 행사</p>	<p>개막식 왕의 물 수신제 개막식</p>	<p>개막식 주제공연 노출 음악회</p>
	<p>공연 행사 '세종의 꿈' 퍼레이드 (행궁, 풍물, 수상) 세종전통시장 축하공연 세종 르네상스 걸리터리 퍼지컬 부국강령 특공 무술 젊음의 광장 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p>	<p>공연행사 브런치공연 (장남공야길라소) 몸짓의 향연 세종 따라 풍물 따라 어울림 마당 유스 포린 치퍼티 양보아리랑 홍익아리랑</p>	<p>공연 행사 한글 꽃 나리고, 아름다운 노랫말 콘서트 어린이 체험·전시 (7개) 가족체험형 프로그램(8개) 시민 화합 프로그램(3개)</p>	<p>공연 행사 주제공연 아름다운 노랫말 콘서트 문화공연 동아리공연 세종어린합창단지</p>
	<p>4종</p>	<p>35종</p>	<p>4개</p>	<p>5개</p>
	<p>35종</p>	<p>11종</p>	<p>6개</p>	<p>11개</p>
	<p>에그리나월드</p>	<p>에그리나월드</p>	<p>에그리나월드</p>	<p>에그리나월드</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3 481 414 515">(노출음향회)</td> <td data-bbox="343 515 414 548">썬주기</td> <td data-bbox="343 548 414 582">양상별 조선시대 과학 체결관</td> </tr> <tr> <td data-bbox="414 481 459 515">6중</td> <td data-bbox="414 515 459 548">31중</td> <td data-bbox="414 548 459 582">10중</td> </tr> </table>	(노출음향회)	썬주기	양상별 조선시대 과학 체결관	6중	31중	10중			
(노출음향회)	썬주기	양상별 조선시대 과학 체결관								
6중	31중	10중								
문제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시설의 부족, 교통혼잡, 화장실 부족 등 운영과 관련된 불편(사)관광경영학회, 2013). 세종과 한글을 메인테마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부족 세종축제의 특성을 찾기 어렵다(이용승,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회 세종축제에 비해 수준 높은 공연, 세대를 달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구분한 주제 전시 등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대표 콘텐츠의 부족, 미출한 홍보, 미숙한 진행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 1회 축제와 비교했을 때 한글을 소재로 한 많은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나, 한글이라는 명칭만 가져다 붙였을 뿐 참신하지 못한 체험으로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이용승,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형 프로그램 수를 증가시켜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세종의 애민사상을 담은 공존하는 한글 꽃 내리고의 메인 공연은 세종축제의 개최목적에 부합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세종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활용 등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차 한글을 이미지화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나 운영상 단점이 많이 보임 						

포스터



세종시에서 그 동안 개최한 총 4회 축제의 공식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회 세종의 꿈을 만나다
- 2회 세종의 꿈을 즐기다
- 3회 세종대왕 납시오
- 4회 세종의 꿈, 세종에서 만나다

축제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축제 전체의 분위기와 행사의 내용과 조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1회부터 4회까지의 주제 선정을 보면 인간 세종에 초점을 두어 각인시킨 점이 지배적이다. 세종 주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 보자.

“너무 널리 알려진 한글이라는 주제에서 킬러 콘텐츠를 찾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주제인 대전의 효 문화 뿌리축제나 청주의 흥타령 축제도 성공한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타지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난다면 일차적인 목표인 문화관광축제 지정도 그리 멀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세종축제는 시 출범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했기에 도시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축제 담당 주무관 A의 인터뷰 내용>

IV. 세종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종축제 방안

1.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1) 축제의 콘셉트 ‘세종대왕’

고조선, 부여부터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주들이 있었지만 대왕이라는 존호가 자연스러운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조선의 세종대왕뿐이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대부분의 활동 무대와 한반도 북부와 만주였고, 1600년 전의 인물이기에 너무 멀어서 시대도 가깝고 사료도 훨씬 많은 세종대왕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다. 주지하다시피 세종은 사후에 추증된 묘호이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하여, 4군 6진 개척,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격루, 측우기, 혼천의를 비롯한 과학기구 개발, 악기를 개량하고 아악 등 음악을 대거 정비하였으며, 농사직설 발간을 비롯한 농업발전에 힘쓰고, 『삼강행실도』,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순지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曆書)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편찬함으로써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태종 때 제작되었던 청동 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글자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량하여 1420년에 경자자(庚子字), 1434년 갑인자(甲寅字), 1436년 병진자(丙辰字)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서적 편찬 진흥에 힘썼다. 세종시기에 편찬된 서적은 많지만 『고려사』와 음운서인 『동국정운』, 지리서인 『팔

도지리지』가 대표적이다.

세종은 육식을 즐기고 학문과 독서를 지나치게 즐겼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종기와 소갈증이라고 불리웠던 당뇨병과 풍질 등을 평생 동안 앓았다고 한다. 또한 세종대왕은 안질이 심각했다고 한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봄부터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다.(세종실록 92권(1441, 세종 23년))" 등의 내용으로 보아 시각에도 장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말기 8년 동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사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에게 선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실제 정사는 세자가 맡았다고 한다. 앞서 본 논문에서는 안질치료 하는데 도움을 준 전의 초수를 소개한 바 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눈부신 업적으로 인해 세종은 한국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가 되어 세종대학교, 세종호텔, 세종증권, 세종서적, 세종연구소, 세종문화회관 등 많은 기관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로를 제외하면 지명으로는 사용된 바 없다. 사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군주나 성자(聖者)의 이름을 지명으로 즐겨 쓰는 유럽과 북미와는 달리 인명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현대에 와서 세종로, 을지로, 충정로, 퇴계로, 원효로, 왕산로, 율곡로, 충장로, 도산로, 고산자로 등 도로명에 인명을 많이 사용했다. 또한 경춘선의 김유정 역, 이순신 대교나 전태일 다리 등 교량에도 인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지구의 명칭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세종 재위 때의 대신 최만리의 이름을 딴 서울 중구 만리동, 시인 노산 이은상의 호를 딴 창원 노산동 등 동 단위에서만 인명을 사용했을 뿐이었고, 통영시의 전신인 충무가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사용했던 예가 거의 유일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전무했다. 이런 의미에서 대왕의 묘호를 딴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왕의 과학 사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실제로 천민출신의 장영실을 파격 기용하여 자격루, 측우기 등을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축제에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과학에 대한 애착을 보여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가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매우 바람직 할 것이다. 마침 세종시는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가 있다. 그런데 걷기 대회 등 과학인들이 참가하는 축제는 있지만 정작 과학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없는 실정이다. 세종축제의 과학 부분 콘텐츠를 대전시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종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시산하의 독자적인 연구소는 없고, 대전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에 주제에 대한 연구를 맡기고 실행하는 것도 두 도시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업적인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동 이름을 자음 순서대로 표기 하였다. 한글이 지닌 가치를 축제와 연계하여 창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세종 축제에 한글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세종대왕 관련 체험프로그램

(1) 과학체험

그 동안 세종대왕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애민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1회에는 행사명칭도 과학체험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했다. 축제 2회에는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도록 했다. 축제 3회차인 2015년에는 어린이·가족·시민으로 확연히 구분하여 모든 참가자들의 기호를 맞춘 프로

그램을 제시하였다.

(2) 대상별 체험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축제는 어느 특정 대상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종시의 세종축제는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차가 거듭되면서 프로그램의 개발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제2회 2014년 체험프로그램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패션체험은 패션과 한글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축제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었다. 3회차의 한글주제, 4회차의 한글관련 체험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여 진다. 특히 4회차의 식전 공연으로 진행된 한복패션쇼는 오스카상 시상식의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목인정 디자이너가 함께 하였다.

세종축제에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한복체험을 제안한다.

세종호수공원에서 한복을 입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액티비티가 되길 바란다.

세종시에는 집현전의 학자인 박팽년의 조부와 선친의 묘소가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에 있으며, 금남면 달전리 문절사에는 집현전의 학자이자 사육신 중 하나인 성삼문 선생의 영정과 각종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세종축제의 하부 프로그램인 성삼문선생 추모제가 문화체육관광과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더욱 확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홍이섭, 1971).

세종축제에도 아이들에게 집현전 학자들처럼 훈민정음 체험을 하고 세종대왕의 도시이니 왕체험을 통해 조선시대 왕의 공부, 경연(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임금이 신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임금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토론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구분	시 간	내 용
식전행사	07:40-08:00	• 사물놀이반 공연 (김봉이)
주민의합관가대회	08:00-09:00	• 장기초-김중서장군묘
주요 개황	09:20-10:40	• 김중서장군묘
개회식	11:00-11:03	• 개회 및 국민악예
	11:03-11:04	• 개회 선언(장군연장)
	11:04-11:06	• 개회사 (선양위원장)
	11:06-11:10	• 축사 (시장 외 3)
	11:10-11:50	• 김중서장군 주제극 공연
공연이벤트	12:20-13:00	• 장군풍물 놀러라
차운음악회	13:30-14:00	• 장군국악대 공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14:10-14:50	• 장군면 출신 가수 공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15:00-16:00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폐막식	16:00-16:30	• 폐회사 및 소망봉헌 날리기

별거구 담송 제형 안내
 * 오전 09:00부터 제형 가능 (단, 기상상황에 따라 유동적)
 담송인원 1회 총 3~4명, 최대중량 200kg 이내

6진개척지도
 * 6진개척지(충청,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6진개척지(충청,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6진개척지(충청,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6진개척지(충청,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연 제 : 2016년 10월 8일 (토) 08:00~16:30
어디서 : 김중서장군묘역 일원 (장군면 대교리 237)
주 최 : 장군면
주 관 : 장군면체육회, 김중서장군선양위원회, 장군면주민자치위원회
후 원 : 세종특별자치시, (주)개똥이네

<그림 IV-1>김중서 장군제 리플렛

출처 : 다음블로그(임규모 기자의 세상알기) <http://blog.daum.net/lin13031303/5879>

세종시 역사자원인 왕의 물 수신제, 김중서 장군 문화제, 성삼문 선생 추모제는 각각 나타내고자 하는 콘텐츠와 의미를 더욱 확대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사장의 복잡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용이 하게 세종 시티투어의 역사 코스로 추가 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4회 세종축제 때 시티투어는 조치원 쪽은 운행하지 않아서 원도심 시민들의 많은 불평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 제5회 세종축제 때는 원도심에도 차량을 배치하여 세종축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티투어버스의 장점은 행사장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하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세종축제와 세종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

과 이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체험의 유희성, 장소성, 그리고 일탈성이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로 보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을 교육적으로 끌어 들이는 작업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노원중, 2013).

또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세종대왕 역을 맡았던 <뿌리깊은나무> 한석규, <대왕세종 장영실> 김상경, <뿌리깊은나무> 송중기, <용의눈물> 안재모, 김종서 장군 역을 맡았던 <관상> 김윤식, <공주의 남자> 이순재, 김처선 역할을 했던 <왕과나>의 오만석 등 연예인과 연기자들을 축제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축제 사회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1회 축제 당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군부대의 참가는 일정 조정의 실패로 2회 부터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향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섭외에 임해서 군부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항공여단의 경우,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대신 여단이 보유한 헬리콥터를 축제에 활용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승 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군부대가 장군면의 김종서 장군 문화제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영 장군의 부관으로 세종시 독락정 일대에 은신하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임난수 장군, 백마고지의 영웅이자 부강면 출신인 김종오 장군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생태문화자원의 활용

1) 특산물 활용

복숭아는 사과나 배에 비해 가공된 식품이 적는데, 젤리 등 어린이에게 적

합한 가공식품을 시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1~4회 세종축제 기간 동안 먹거리 부족 문제가 계속 진행되었다. 사실 충청도에는 두루치기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고유의 먹거리가 없기는 하지만 두루치기와 찌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짜글이’는 청주에서 유래하여 조치원에도 널리 퍼진 향토 음식이다. 청주가 원조이긴 하지만 청주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고 있고, 순수 우리말이기도 하고 발음도 재미가 있어 세종축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내세우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조리 특성상 어린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짜글이의 양념과 조리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짜글떡(어린이 기호에 맞춘 짜글이 양념+떡볶이)’ 등의 레시피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자연환경활용

축제의 자원으로 세종시를 관류하는 금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특히 충청북도 북서부의 여러 고을을 적시고 금강과 합류하는 합수지역이 세종시에 있어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이름이 예전에도 삼기강(三岐江)이라 하여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지역, 즉 호남의 물과 충청북도 동부 일원인 경상도의 물과 충청도의 물이 합한다는 의미로 보았듯이 현재도 그러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미호천(옛 동진강)과 금강이 합수하는 곳에 캠프장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금강은 인근지역 주민에게 있어 삶과 직결되는 생활터전이었다. 강은 공간적으로 보면 단절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지리학적으로 보면 늘 연결되어 있었다. 나루는 단절이 아닌 연결이라는 상징성의 아이콘이다. 세종시 영역

안의 나루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세종금강유역나루터

소재강	나루
금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شنا루 ■ 새오개나루(초오개나루) ■ 선말나루 ■ 빙이나루 ■ 구들기나루 ■ 용댕이나루 ■ 골뱅이나루 ■ 앵청이나루 ■ 서근수나루 ■ 독낙정나루(나리재나루) ■ 한림정나루 ■ 반개나루 ■ 불티나루
미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진나루

세종시 부강면은 금강의 하항 중점으로 성시를 이루었던 곳이다. 부강지역은 여러 나루도 있었지만 금강의 하항 중점포구로 부강의 구평(구들기)지역이 가장 상류에 위치했던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로교통의 흔적이 옛적의 유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 역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루는 세종시 축제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일예로 앵청이나루는 앵청이라는 처녀의 애달픈 전설이 있는 곳이다. 사공과의 이루지 못한 사연이 있는 앵청이나루는 전월산 남쪽 자락에 있어 전월산과의 자원연계가 충분하다. 나리재(독락정)나루는 정자와 나루, 풍류와 나루라는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한림정나루는 신준미라는 인물의 임금에 대한 충정을 담고 있는 공간이므로 교육적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다.

3. 생활문화자원의 활용

1) 세종국립도서관

양옆을 살짝 들어 올린 지붕을 가져 한국적 조형미를 자랑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의 엠블럼하고도 잘 어울리고, 실제적으로 정부청사를 능가할 정도로 세종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문을 즐겼고 독서광이었던 대왕과 잘 어울리는 건물이다. 세계적인 디자인 정보 웹진인 ‘디자인 붐’은 국립세종도서관은 도서관 건물 자체가 책 펼쳐진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이 된다. 또한 세종시대의 왕립 도서관이자 싱크탱크였던 집현전의 이미지와도 잘 연결되는 건물이기도 하다. 이런 세종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스토리텔링으로 국립세종도서관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종축제는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무척 아쉽게 느껴진다. 보다 적극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김종서 장군 문화제도 4군 6진 개척 등 ‘장군’으로서의 김종서만 강조되고 있을 뿐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자

「고려사」 편찬 책임자였던 학자로서의 면모는 전혀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세종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중앙수목원이 완성 되므로 세종시의 우수한 환경 자원을 활용한 세종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역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욕구 충족과 해당지역의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시민들의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지속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손형근, 2016). 제1회부터 진행되어 온 세종축제의 메인 콘텐츠인 세종대왕 퍼레이드와 약2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세종대왕 어가 행렬이다. 축제의 모티브가 세종대왕의 초정행차라는 역사적 사실이기에 ‘세종대왕의 초정어가행차 재현’ 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이용승, 2015).

2) 한글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인 한글 창제를 기리기 위해 동 이름을 자음 순서대로 표기 하였다.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 한글이 지닌 가치를 문화 산업으로써 축제와 연계하여 창조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세종 축제에 한글이 많이 녹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글씨체는 캘리그래피다. 캘리그래피는 그리스어로 아름답게 쓰다’ 라는 뜻으로 어원적으로는 Kallos(beaphy)+ graphy를 합친 것이다. 즉 손으로 그린 아름다운 필적 또는 그림문자라는 의미이다. 좁은 의미로는 서예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활자 이외의 서체를 포함한 것이다. 세종축제+ 한글+ 캘리그래피가 만나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서인교, 2009).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왕의 과학 사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실제로 천민출신의 장영실을 파격 기용하고, 자격루, 측우기 등을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축제에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과학에 대한 애착을 보여 중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하여 추가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매우 바람직 할 것이다. 마침 세종시는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대덕연구단지과 과학벨트가 있다. 그런데 걷기 대회 등 과학인들이 참가하는 축제는 있지만 정작 과학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없는 실정이다. 세종축제의 과학 부분 콘텐츠를 대전시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종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시산하의 독자적인 연구소는 없고, 대전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에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를 맡기고 실행하는 것도 두 도시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큰 업적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동 이름을 자음 순서대로 표기 하였다. 한글이 지닌 가치를 축제와 연계하여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세종 축제에 한글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란 단어 중 제(祭)는 제사라는 의미이고 일본의 마쓰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사실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용어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졌기에 축제라는 단어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세종축제는 한글이 주제이므로 잔치라는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들 가운데 세종축제는 다른 도시의 축제와는 달리 도시의 출범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도시의 축제들도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신생도시 세종시의 세종축제는 이런 목적성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 문화자원의 이론적 고찰과 세종시의 문화자원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세종축제는 축제의 제의성과 지역성이 전무하거나 희박하고, 유희성과 일탈성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산물이 부재한 실정이라 다른 지역의 축제와는 성격이 달랐다. 더구나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소재를 축제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종축제는 시민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여 도농복합형 지역 사회와 중앙권력 기관의 조화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대부분의 국정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와의 부처와도 연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앞서 제안한 대덕과학단지과 연계한 과학관련 축제 콘텐츠는 미래창조과학부, 세종대에 편찬된 <농사직설>을 매개로 농림식품부, <신찬 경제육전> 등 법전의 간행을 매개로 법제처(법무부는 과천에 있음)와 연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 축제의 트렌드인 야행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이다. 야간의 문화를 느끼고 세종시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보단 밤의 문화의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대해 논하자면,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세종시의 이름에 왜 세종대왕의 이름을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3장에서 대왕과 관련된 시 관내의 문화자원을 소개했는데, 장군문화제, 왕의 물 축제, 성삼문 추

모제 등 세종 축제와 연계하고 있는 지역 축제의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4회까지의 세종축제의 세 가지 축인 한글, 과학, 음악 중 음악분야를 예술분야로 확대 개편할 예정으로 축제에 예술(문화)적인 분야의 부족함을 채워 문화관광 축제 선정 기준에 보다 가깝게 구성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5회 축제는 음악을 예술로 변경한 이유 중 하나는 장육진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축제에 연계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 세종축제 기간에 ‘심플하고 무한한 장육진의 세상’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가 축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한다. 장육진 화백은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작품에도 불교의 영향이 강하다. 그런데 마침 조계종 총무원 분원이 세종시에 설립될 예정이고, 비암사 등 지역의 사찰은 물론 인근의 계룡산에 신원사, 갑사, 동학사 등 대형 사찰이 많으므로 불교 문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제4회 세종축제 때 세종시가 삼익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세종어린이 합창잔치 (교육청 후원), 호수공원 수상무대 공연, 어린이 피아노 대회, 한글날 기념 공연 등 삼익문화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하지만 삼성전기, 남양유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관내 기업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아서 이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종축제는 시민참여형 축제라는 성격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서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는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종축제의 창설과 함께 폐지된 도원 축제 퍼레이드의 전통을 살리고, 세종축제의 개막식과 연계되도록 시민의 참여와 축제의 주제를 반영한 퍼레이드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별 경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상금 및 혜택부역, 읍면동별 교육(세종도시재생대학-축제활성화팀 등)을 받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퍼레이드 후 주제공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신도심 아파트 단지와 각 면이나 리 단위 마을 축제를 발전시켜 축제 주제와 결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종축제의 메인이벤트이자 시민참여형 주제공연인 ‘2017 한글꽃 내리고(가제)’는 2년간의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제작단과 시민오디션 등 시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사전 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유일한 행정도시이기에 2017년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행사인 세계행정도시국제포럼을 2017년 6월 29일~ 6월30일 까지 진행한다. 세계 주요 행정도시 (터키 앙카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브라질 브라질리아, 중국베이징) 등과의 협약을 맺어서 세종축제 속의 한 프로그램으로 행정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2020년에는 세종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중앙수목원이 완성된다. 또 하나의 명품관광지로서 세종호수공원과 함께 국립중앙수목원으로 이어지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대 축제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축제로 거듭 성장하는 킬러 콘텐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스타벅스, 이케아, 네슬레, 교세라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미국, 유럽, 일본의 중소도시들을 소개한 「작은 도시 큰 기업」의 저자 모종린 씨는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인 도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라고 평했다. 그리고 캔버라 같은 전원도시, 워싱턴 같은 정치도시가 아니라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꿈꾸는 인재를 끌어 모으는 단계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책을 마무리했다. 그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가 바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세종축제가 되고, 그 산업 중 하나가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산업이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자료>

금남면향토지(1995), 조치원문화원

연기군지(1988), 연기군지편찬위원회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24일 기해 1번째기사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3일 신미 2번째기사

<저서>

다빈치 축제 편집팀(2016), 『세계 축제 100』, 다빈치

원승룡·김중헌(2001),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서울: 서광사

유럽사회문화연구소(2006), 『축제 정책과 지역현황』,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문웅(1989), 『문화의 개념』, 서울: 일지사

정강환(2013), 『축제와 문화재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대전:
배재대학교 출판부

홍이섭(1971), 『세종대왕 전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John Storey(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역, 서울: 현실문화연
구

Getz, D(1990), 『Special events defining the product』, Tourism
Management

<논문>

김권식·이광훈(2016),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지역 행사 축

- 제의 성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정현(2016), 「축제참여의 마음챙김이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2006), 「지자체의 대표축제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엽(2012), 「군(軍)문화축제의 관광 상품화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용(2009), 「지역 축제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임경환(2016), 「지역 축제 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 남길현(2016), 「도심 중심가 문화재활용형 야간 이벤트의 만족도 차이 연구」, -순천야행 서울 정동야행(夜行)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원중(2013), 「문화관광축제 체험요소가 브랜드가치와 축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3호.
- 박찬욱(2013), 「지역 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인교(2009),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문화관광축제 포스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형근(2016),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축제효과가 지역애착도와 축제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숙(2017), 「공주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공주 문화유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승(2015), 「세종브랜드 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우(1997),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제용·이광옥(2016), 「문화관광축제 서비스품질과 만족 및 재방문 평가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 임목·박종진(2016), 「지역축제의 성과 및 가치 인식에 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차이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Vol.41 No.2
- 전동평(2002),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홍윤(1994), 「향토축제활성화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최다솜·김도균(2016),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 발전 전략 연구」, 여가관광연구 Vol.26
- 황정주(2009), 「마을만들기에서 지역 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유리(2014), 「한글을 활용한 브랜드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고서>

- 강신겸 외(2016), <2015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국 축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
-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2016-2017), <함께 그리고 공동체>,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 도시재생신문
- 세종특별자치시(2013-2016), <제1-4회 세종축제종합 평가 및 방문객

분석 결과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2014),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지정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제93호

세종특별자치시(2015)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16-2017), <세종시정소식지>, 세종시 발행 신문

충남·충남문화산업진흥원(2013), <충남마을축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2013),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사업 발굴>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4), <향토축제활성화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뉴스기사>

곽우석(2017), 세종시평균연령 36.8세, 세종의 소리

남난우(2017), 제13회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성황, IPN뉴스

임영수(2017), 세종시정소식지, “백제유민이 지은 ‘비암사’ 이름 본따”

투어 코리아 2017. 2월 21일 자

함께 그리고 공동체(2016), “김중서 장군묘”,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함께 그리고 공동체(2016), “전의 박팽년 연구소를 만나다”, 세종시도시
재생지원센터

함께 그리고 공동체(2017),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서”, 신도심에서 즐기는
힐링 “세종호수공원”,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함께 그리고 공동체(2017),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장육진 화백”, 세종시도시
재생지원센터

<웹사이트>

강정임 <http://sejongstory.kr/220832607490>

김보현(세종시블로그기자단) http://www.sejong.go.kr/prog/blog/citizen/sub04_02_01

네이버블로그(그 길을 따라서) <http://www.jhlav.blog.me/220963329634>

네이버블로그(해피바이러스) <http://blog.naver.com/4artmagazine/110103184353>

다음블로그(임규모 기자의 세상알기) <http://blog.daum.net/lin13031303/5879>

마토블로그 <http://foemum.blog.me/22099209932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2016), “철도의 개통, 그리고 복숭아 이야기”

세종시청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index.jsp>

안명희(세종시 블로그기자단) http://www.sejong.go.kr/prog/blog/citizen/sub04_02_01

위키백과, 전의초수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D%98%EC%B4%88%EC%88%98>

행정자치부 블로그 mopaspr, <http://blog.koreamoi.com/220838540829>

ABSTRACT

"Sejong festival: a plan of action for utilizing local
natural cultural resources"
-centered in Sejong-

Yoon, Seon Hee.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Arts

Sungshin University

Sejong City is a new city that has been around only five years since being established. It is an administrative city formed in part due to the transfer of som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from Seoul and Gwacheon. The population is made of a combin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their families, the citizens who migrated to find new opportunities as well as the people already based in the surrounding counties of Yeongi-gun, Buyeong-myeon. Citizens with different backgrounds need a sense of heterogeneity, and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an important goal of Sejong City government.

Recently, the population of Sejong City has broken through the 260,000 mark, and by 2030 the city it is hoped will have a

population of 800,000. The physical business of building the city is proceeding without any problem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ity centering on the theme 'City of Happiness', but the culture of the city and amenities for the citizens to relax within the city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solved only by the budget or through administrative authority. In rare cases, the Sejong Festival, which was held a year after the birth of the city, seem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city. Sejong City is a city named after King Sejong the Great, and King Sejong Festival is designed around this theme of the Great King and Hangeul.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hortcomings due to the lack of proper use of the two subjects, and there are many other festival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activate the Sejong Festival more actively by using the resources of Sejong City including Hangeul and King Sejong.

In Chapter 1, we present the meaning of research, purpose, and research methods of the study. In Chapter 2, we review the literature research on the concept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festivals. Cultural resources, and cultural resources, and analyzed the value based on field researc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Sejong Festival that has been held from 1 to 4 times, we confirmed various improvements such as lack of advertisement, lack of killer contents, and based on

some interviews with festival experts, staff members, and participants.

Based on the analyzed values, we suggested ways to make use of traditional culture resources, eco-cultural resources, and living culture resources. First,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were presented including

Korean calligraphy, and science content development with festival concept. Eco-cultural resources including peaches, Jjagul-i soup, were promoted in order to utilize the local products of Sejong. Utiliz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as also suggested ie: linking the Geum River to the Sejong Festival. The third life culture resource was presented as the utilization plan of King Sejong King 's Hangeul Creation, a sense of consciousness, and Military culture. In addition to this,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methods,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methods, and commissioning of a Sejong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to revitalize Sejong Festival.

Keyword : Sejong Festival, Sejong city, Local festival, Hangeul(Korean), King Sejong, Love for the people, Brand of City, Jang Uk JIn, Sej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 Sejong Lake Park